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10. 25.(목) / 총 13매(본문13)
담당 부서	혁신도시 정책총괄과	담당자	·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김희수, 사무관 최승욱, 사무관 서혜린, 주무관 박용현 ☎ (044)201-4458, 4490, 4460
보 도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25일(목) 18:00이후 보도가능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 2022년까지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4.3조원 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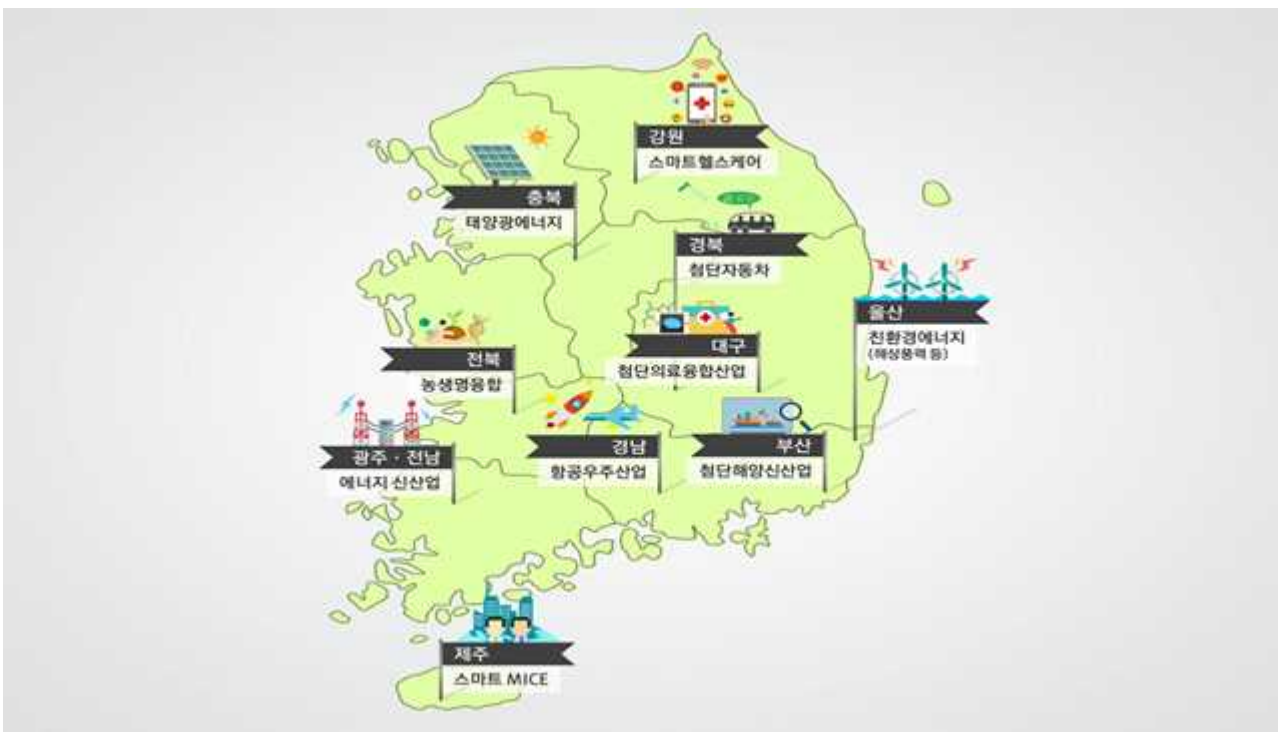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18~’22)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10.25일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준2(‘18~’30)’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 또한, 혁신도시별로 만든 발전계획(‘18.7)을 토대로(Bottom-up) 실현 가능성 및 타 계획과의 연계* 방안 검토, 관계기관 협의(‘18.7~10) 등을 거쳐 수립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부터 국토부,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여 계획 방향, 발전전략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지역선도대학(교육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등

□ 계획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며,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하여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하였다.

< 발전 테마 선정 예시 : 강원 ☞ 스마트 헬스케어 >

- ▶ (지역 전략산업) 건강·생명 및 관광
- ▶ (이전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
- ▶ (주변 여건) 기업도시 및 산단 등 특구에 의료관련 기업 다수 입주 등



○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3조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화발전 지원 2.9조원(67%), 정주여건 개선 1.1조원(26%), 상생발전 0.3조원(7%)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원 조달계획) 4.3조원 = 국비 1.7조원 + 지방비 1.3조원 + 민자 등 1.3조원

○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발전재단을 설립하여 특화발전 전략 이행 주도 및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생발전 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 계획에 반영된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와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부 산) ⇨ 첨단해양 신산업



- 부산 혁신도시는 바다에 인접해있고, 인근에 해양 플랜트 연구 개발특구가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해양 관련 이전 공공기관이 있어 첨단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첨단 해양과학기술 혁신거점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빌리지를 건립하고, 인근 혁신클러스터, 개방형 연구실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STEM 빌리지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창업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인재 양성·채용을 위해 석·박사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 안전·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해양 레포츠와 어업 활동 등을 지원한다.

② (대 구) ➡ 첨단의료 융합산업



- 대구 혁신도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의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도 의료 및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 118개사가 입주해 있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 발전 테마로 선정하였다.
- 뇌 관련 연구기관들이 집적된 뇌연구 실용화 센터를 건립하고, 기존 뇌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국제 수준의 연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융합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또한, 유전체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위해 첨단의료 유전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산학융합 지구를 지정하여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및 대학생 전용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③ (광주·전남) ⇨ 에너지 신산업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 산업단지가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Energy Storage System)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와 ESS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하여 스마트 전력 인프라 조성, 에너지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운영 등 에너지 맞춤형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④ (울 산) ≡ 친환경 에너지(해상풍력 등)



○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新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 해상풍력 관련 부유체 제작 및 계류 시스템 설치 등에 활용

○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 등도 건립하게 된다.

* 부유체 제작 및 계류 시스템 설치 등에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 활용

○ 또한, 이전 공공기관인 동서발전과 협력하여 울산미포,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 내의 에너지 多 소비형 기업에 ESS를 매년 10개씩 구축하여 에너지 보급을 안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미술관, 도서관 등을 건립하고, 구도심 도시재생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도모한다.

⑤ (강 원) ≡ 스마트 헬스케어



-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인근의 의료기기 테크노 벨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혁신기반을 활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
- 혁신도시 주변 의료기기 테크노벨리와 이전 공공기관(건강·생명)과 연계한 개방형 연구실을 건립·운영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비·기술 등을 지역기업·대학 등과 공유하고, 기술이전 및 기업 활동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 또한,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현장, 구급차, 병원 등이 환자상태 및 치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토록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⑥ (충 북) ☞ 태양광 에너지



- 전국 최초의 태양광 특구인 충북은 앵커기업(한화큐셀 등)을 포함한 다수의 태양광 기업(69개)이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의 연구기관이 있어 태양광 에너지를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 태양광 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디자인, 제작)과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초고층 태양광 설비 실증 연구센터, 도로형 태양광 실증 사이트 등도 운영하여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미래형 교육모델(서전고*)을 유·초·중학교로 확산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의료서비스도 개선한다.

* 학생 맞춤형 교육선택 과정 운영 등 학생들의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미래형 학교모델(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

⑦ (전 북) ≡ 농생명 융합



-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인근의 국가 식품 클러스터(익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김제), 미생물 클러스터(정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 발전 산업으로 선정하였다.
- ICT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전문시설과 경영형 실습농장 등이 포함된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조성하고,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 기관을 입주시켜, 실험실 공유 및 기술이전, 판로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농업 혁신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또한, 전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완주 플랫폼과 연계하여 현재 전주와 완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여 공공서비스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⑧ (경 북) ≡ 첨단자동차



- 경북은 다수(880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과,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4개)가 있으며, 경북 혁신도시와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자동차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자동차 부품 기업이 입주해 있어 첨단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첨단 자동차 부품과 튜닝 관련 기술지원, 부품제조, 복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통안전공단 등과 연계하여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등 자동차 안전 산업도 특화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립, 차량과 자전거 등에 대한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생활 만족도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⑨ (경 남) ≡ 항공우주산업



- 경남 혁신도시는 인근의 진주,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0여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한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항공 국방기술센터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가 있어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항공우주·첨단 신소재 관련 연구개발과 사업화·창업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협업하여 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 도서관과 교통·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와 병원 등을 건립하여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⑩ (제 주) ≡ 스마트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 제주 혁신도시는 편리한 교통·숙박,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따라 국제 인지도가 높고,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 등과 같은 MICE 지원기관이 있어 스마트 MICE를 육성할 계획이다.

○ 마이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며, 회의·전시, 교육, 관광 등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60건(139건, '17) 이상의 국제회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이전기관(교육·연수)

○ 또한, 인근 마을의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방문객 맞춤형 마을관광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변지역의 발전도 꾀할 예정이다.

* 방문객 수, 관광 목적, 일정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제공

-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렌터카 하우스를 건립하고,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新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최승욱 사무관(☎ 044-201-4458) 또는
 서혜린 사무관(☎ 044-201-4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